



일자리정책과

고양 청년 여기서 꽂 파워라~

안녕~ 나는 고양시 청년이야. 요즘처럼 청년이 사회 이슈가 된 적 있었어?
청년 실업률 얘기만 나오면 괜히 눈치가 보이는 건 나뿐이야? 우리가 눈높이를 낮추면 해결된다는데 나는 원하는 곳에 취업하고 싶어. 그런데 올해 고양시가 우리를 위해 여러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글 한수진 주무관(일자리정책과) 사진 일자리정책과



고양
나눔터
1



올해 고양시 청년을 위한 예산을 수립해 다양한 청년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의 시정참여 통로로써 '청년정책협의체'와 청년정책의 심의 기관인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청년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만드는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접수기간 5. 1 ~ 7. 12), 청년 취업의 결정판 '청년 취업 박람회', '취업 정장대여', 일자리 센터 내 '청년전담 상담창구' 운영, 전국 청년들의 생각을 청년정책으로 바꿔 줄 '청년정책 박람회(9. 24(화))', 일산역 주변 조성될 '청년예술창작소(9월 중 개소 예정)' 등이 우리 청춘의 속을 뻥~ 뚫어줄 수 있는 사이다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1 청취대방

2 청년정책위원회

3 고양청년 재정지원 프로그램 MOU 협약식

4 고양시청년정책협의체 회의

청년 일자리를 넘어 청년 문화공간으로 “청취대방”



작년까지 10개소로 운영되던 청년들의 취업과 소통을 위한 수다방인 청취대방이 올해 20개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민간 카페를 임차해 청년들의 공감문화 '카페'에서 일자리를 연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각종 멘토링도 진행해 보다 많은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청년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것이다.

(예비)창업자 다 모여라~ “고양청년 재정지원 프로그램”



청년들이 창업을 준비하거나, 기존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양시는 KEB하나은행,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지난 3월 MOU를 맺어 2년간 200억 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예비)창업자들은 고양청년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5천만 원까지 무보증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이라면 누구나 드루와~ “고양 청년커뮤니티”



올해 7월 화정버스터미널 2층에 개관할 예정인 고양 청년커뮤니티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쉽게 오고 가며 서로 소통하고 청년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자립형 공간이다.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세미나실, co-working 공간, 공유 부엌, 일자리 카페, 회의실 등으로 구성 및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도비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 고양 청년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될 것이다.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라면 “청년배당”



경기도 청년배당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을 분기별로 나눠서 지역화폐로 지급된다.